

# 당대 문인의 신라 인식

— 당시 속에 나타난 신라 관련 시를 중심으로

徐盛\*

## <목 차>

1. 서론
2. 신라-당 문인의 시 교류 상황
3.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신라
4. 자국인 사이의 시선으로 본 신라
5. 결론

## 1. 서론

신라와 당 사이에 문물 교류가 빈번하고 활발했던 것은 두 나라가 각각 강렬한 필요와 동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교류에는 두 나라 문화의 기본 성격 가운데 하나로, 사전에 국책이나 방침으로 전제되어 세워지거나, 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 당시의 정황에 맞추어 세부적인 기준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문화 교류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견 또한 존재하며, 설사 관방의 정책이 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두 나라 문인 사이에도 개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장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된 문화 교류에는 당과 신라 사이에 수많은 요소가 연관되며 다양한 관점이 개재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지증왕 이래 중국적인 방식을 적극 채용한 연장선에서 문물과 제도

\* 열린사이버大學校 中國비즈니스學科 副教授

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당나라는 본격적인 외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인적 왕래와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었고 신라는 더 넓은 국제화의 길을 걸었다.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양국 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교류 자체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당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신라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는가? 본고는 당대 문인들의 신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현존하는 시를 통해 따져봄으로써 신라 한시 발전의 기초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당시 문물 교류의 특징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 2. 신라-당 문인의 시 교류 상황

신라인과 당인 사이의 시문 교류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류에 있어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가 주요한 관심이 되므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적을 주요한 요소로 삼아 교왕시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들은 다시 국내 문인 사이의 교류와 국외 문인 사이의 교류로 나눌 터인데, 이러한 경우가 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아래와 같이 신라인-신라인, 신라인-당인, 당인-신라인, 당인-당인 등과 같이 4가지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국적	받은이 국적	지은이	받은이	제목	출처
신라	신라	崔致遠	鄉友	山陽與鄉友話別 <sup>1)</sup>	東文選 권19
		崔匡裕	鄉人	送鄉人及第還國	十抄詩
신라	당	眞德女王	唐 高宗	太平頌	三國史記 권5
		金喬覺	童子	送童子下山	全唐詩 권808

지은이 국적	받은이 국적	지은이	받은이	제목	출처	
		惠超	漢使	逢漢使入蕃略題四韻	往五天竺國傳	
		朴昂	王山人	尋太一王山人路次雲際寺	千載佳句 권下	
		金立之	靑龍寺僧	贈靑龍寺僧	千載佳句 권下	
			僧	贈僧	千載佳句 권下	
		高駢			七言紀德詩三十首, 謹獻司徒相公	桂苑筆耕集 권17
					陳情上太尉詩	桂苑筆耕集 권20
					奉和座主尙書避難, 過維陽寵示, 絕句三首	桂苑筆耕集 권20
					歸燕吟, 獻太尉	桂苑筆耕集 권20
					行次山陽, 續蒙太尉寄賜衣段, 令充歸覲續書信物, 謹以詩謝	桂苑筆耕集 권20
			顧雲		暮春卽事, 和顧雲支使	十抄詩
					和顧雲侍御重陽詠菊	十抄詩
			張喬		和張進士喬村居病中見寄	十抄詩
			楊瞻		酬楊瞻秀才送別	桂苑筆耕集 권20
					酬進士楊瞻送別	桂苑筆耕集 권20
			吳瞻		辛丑年寄進士吳瞻	十抄詩
			李展		和李展長官冬日遊山寺	十抄詩
			吳巒		酬吳巒秀才惜別二絕句	桂苑筆耕集 권20
					送吳進士巒歸江南	東文選 권12
			女道士		留別女道士	桂苑筆耕集 권20
			張尙書		楚州張尙書水郭相迎 因以詩謝	桂苑筆耕集 권20
		高員外		中和甲辰年冬十月, 奉使東泛, 泊舟於大珠山下, 凡所入目命爲篇名, 嘯月吟風, 貯成十首, 寄高員外	桂苑筆耕集 권20	
		友人		和友人除夜見寄	桂苑筆耕集 권20	
		清上人		和金員外贈嶠山清上人	桂苑筆耕集 권20	
		于慎微		長安旅舍, 與于慎微長官接鄰有寄	東文選 권9	
		智光上人		贈雲門蘭若智光上人	東文選 권9	
		李長官		秋日再經盱眙縣寄李長官	東文選 권12	

지은이 국적	받은이 국적	지은이	받은이	제목	출처	
	朴仁範	李員外	兗州留獻李員外	千載佳句 권上		
		洛中友人	留贈洛中友人	千載佳句 권上		
		田仁義	成名後酬進士田仁義見贈	千載佳句 권上		
		儼上人	送儼上人歸乾竺國	十抄詩		
		張峻	江行呈張峻秀才	十抄詩		
		睿上人	寄香巖山睿上人	十抄詩		
		雲栖上人	涇州龍湖寺閣兼柬雲栖上人	十抄詩		
		殷員外	上殷員外	十抄詩		
		田校書	贈田校書	十抄詩		
		馮員外	上馮員外	十抄詩		
		崔承祐	知己	憶江西舊遊因寄知己	十抄詩	
			陳策	關中送陳策先輩赴邠州幕	十抄詩	
			薛雜端	贈薛雜端	十抄詩	
			韋太尉	春日送韋太尉自西川除淮南	十抄詩	
			李舍人	獻新除中書李舍人	十抄詩	
	曹松		送曹進士松入羅浮	十抄詩		
	李季才		鄴下和李季才與鏡	十抄詩		
	崔匡裕	知己	交居呈知己	十抄詩		
		李處士	憶江南李處士居	十抄詩		
	당	신라	李隆基	新羅王 賜新羅王	東國通鑑 권10	
			陶翰	金卿 送金卿歸新羅	全唐詩 권146	
			孫逖	新羅法師 送新羅法師還國	全唐詩 권118	
			沈頌	金文學 送金文學還日東	全唐詩 권202	
			劉慎虛	薛文學 海上詩送薛文學歸海東	全唐詩 권256	
			章孝標	金可紀 送金可紀歸新羅	全唐詩 권506	
			張籍	金少卿	送金少卿副使歸新羅	全唐詩 권385
				海東僧	贈海東僧	全唐詩 권384
新羅使				送新羅使	全唐詩 권384	
馬戴			朴山人 送朴山人歸新羅	全唐詩 권556		
無可			朴山人 送朴山人歸日本 <sup>2)</sup>	全唐詩 권813		
顧非熊			朴處士	送朴處士歸新羅	全唐詩 권509	
			無明	寄紫閣無明新羅頭陀僧	全唐詩 권509	
姚合			無明	寄紫閣無明頭陀	全唐詩 권497	
法照			無著	送無著禪師歸新羅	全唐詩 권810	
許渾	友人	送友人罷舉歸東海	全唐詩 권531			

지은이 국적	받은이 국적	지은이	받은이	제목	출처
		劉得仁	新羅人	送新羅人歸本國	全唐詩 권544
		項斯	客	送客歸新羅	全唐詩 권554
			僧	日東病僧 <sup>3)</sup>	全唐詩 권554
		姚鵠	僧	送僧歸新羅	全唐詩 권553
		賈島	褚山人	送褚山人歸日東	全唐詩 권573
			新羅使臣	過海聯句	苕溪漁隱叢話
		張喬	朴充	送朴充侍御歸海東	全唐詩 권638
			金夷吾	送賓貢金夷吾奉使歸本國	全唐詩 권638
			朴球	送棋待詔朴球歸新羅	全唐詩 권638
			雅覺	送僧雅覺歸海東	全唐詩 권638
			人	送人及第歸海東	全唐詩 권639
			新羅僧	送新羅僧	全唐詩 권638
		顧雲	崔致遠	送崔致遠西遊將還	三國史記 권46
			崔致遠	孤雲篇	破閑集
		許棠	金吾	送金吾侍御奉使日東	全唐詩 권604
		張蟾	友人	送友人及第歸	全唐詩 권702
		杜荀鶴	賓貢	送賓貢登第後歸海東	全唐詩 권691
		林寬	人	送人歸日東	全唐詩 권606
		許彬	新羅客	送新羅客歸	全唐詩 권678
		皮日休	弘惠上人	庚寅歲十一月，新羅弘惠上人與本國同書請日休，爲靈鷲山周禪師碑，將還以詩送	全唐詩 권614
		陸龜蒙	弘惠上人	和襲美爲新羅弘惠上人撰靈鷲山周禪師碑送歸詩	全唐詩 권626
		貫休	新羅僧	送新羅僧歸本國	全唐詩 권832
			新羅人	送新羅人及第歸	全唐詩 권836
			新羅衲僧	送新羅衲僧	全唐詩 권836
			人	送人歸新羅	全唐詩 권829
		齊己	高麗二僧	送高麗二僧南遊	全唐詩 권847
			僧	送僧歸日本 <sup>4)</sup>	全唐詩 권847
		鄭谷	鑿禪師	贈日東鑿禪師	全唐詩 권675
		裴說	賓貢	贈賓貢	全唐詩 권720
		楊夔	日東僧	送日東僧遊天台	全唐詩 권763
		尙顏	朴山人	送朴山人歸新羅	全唐詩 권848
당	당	張說	梁知微	送梁知微渡海東	全唐詩 권89

지은이 국적	받은이 국적	지은이	받은이	제목	출처
		皇甫冉	歸崇敬	送歸中丞使新羅 (送歸中丞使新羅冊立弔祭)	全唐詩 권250
		皇甫曾			全唐詩 권210
		耿湜			全唐詩 권269
		李端			全唐詩 권286
		吉中孚			全唐詩 권295
		錢起	陸斑	送陸斑侍御使新羅	全唐詩 권237
				重送陸侍御使新羅	全唐詩 권237
		顧況	顧愔	送從兄使新羅	全唐詩 권266
		權德輿	韋丹	奉送韋中丞使新羅	全唐詩 권323
		孟郊		奉同朝賢送新羅使	全唐詩 권379
		竇常	崔廷	奉送職方崔員外攝中丞新羅冊使	全唐詩 권271
		劉禹錫	源寂	送源中丞充新羅冊立使	全唐詩 권359
		姚合		送源中丞使新羅	全唐詩 권492
		馬戴	王使	送冊東夷王使	全唐詩 권556
		李昌符	新羅使	送人入新羅使	全唐詩 권601
		曹松	胡中丞	送胡中丞使日東	全唐詩 권716

위 표의 작품들은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처음 실린 저작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1) '신라-신라'의 경우는 신라인이 당나라에서 신라인에게 준 시로 현존하는 시는 매우 적다. 이는 현존하는 신라 문인의 한시 120여 수 가운데 최치원의 작품 이외에는 작품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인들이 당나라에서 주고받은 시라고 가정했을 때 이국에서의 동향인에 대한 각별

- 1) 산양(山陽)이란 지명은 통일신라시기에 없던 것으로 고려시기에 등장한다. 최치원의 시 가운데 高駘에게 주는 <行次山陽, 續蒙太尉寄賜衣段, 令充歸觀續壽信物, 謹以詩謝>에서 산양이란 지명이 나오므로 이 시의 지명 역시 초주 산양(山陽, 강소성 淮安市)으로 보았다.
- 2) 당대 시인들의 시에 나오는 日東, 海東, 日本 등의 지명은 신라와 일본 가운데 어디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無可는 馬戴, 顧非熊과 함께 절친한 친구 사이였으므로, 無可의 <送朴山人歸新羅>, 顧非熊의 <送朴處士歸新羅>은 동일한 인물 朴山人을 송별하며 쓴 시이며, 때문에 제목의 日本은 日東의 잘못으로 보았다.
- 3) 項斯의 시에 <送客歸新羅>가 있으므로 이 시제의 日東 역시 신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 4) 이 시의 제3구에 "卻憶鷄林本師寺"라 하여 鷄林이란 말이 명확하게 나오므로 시제의 日本은 신라로 보았다.

한 인정을 표현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다.

2) '신라-당'의 경우는 신라인이 당인에게 준 시 또는 당인들과 관련된 시이다. 한눈에 보아도 만당 시기 최치원의 시가 많으며, 그밖에 박인범과 최승우 등의 시가 있다. 주로 우의를 다지거나 일부 시는 간알(干謁)의 풍기에 따라 손윗사람에게 발탁을 바라는 뜻을 표현하였다. 이는 당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보이는 교제의 산물이다.

3) '당-신라'의 경우는 당인이 신라인에게 준 시 또는 신라와 관련된 작품들로 대부분 송별시이다. 고대에는 송별은 곧 영별을 의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별을 당하여 일생일대의 진지한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바다 건너 본국으로 돌아가는 신라인을 보내며 쓴 시는 깊은 정회를 표현함과 동시에 국가 관념을 함께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4) '당-당'의 경우는 대부분 당인이 신라에 사신으로 가는 당인을 보내며 쓴 시이다. 이 그룹의 시 역시 신라라는 지역 의식이 드러나며, 정사 또는 부사가 외교적 임무를 띠고 험도에 오르므로 국가적 사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네 가지 그룹의 시 가운데 3)과 4)는 특히 당인의 신라관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당-신라'의 경우는 당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라인은 외국인이므로 '외부자'의 시선으로 신라인을 만나고 바라볼 것이다. 이에 비해 4) '당-당'의 경우는 당인이 신라에 가는 당인에게 주는 시이므로 '내부자'의 시선으로 신라인과 신라를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측면에서의 검토가 모두 필요하며, 당인의 신라관을 보여주는 데 있어 복합적인 이해를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래에서 3)의 경우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신라'라고 규정하고 검토하고자 하며, 4)의 경우를 '자국민 사이의 시선으로 본 신라'라고 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인간관계의 소묘와 정도에 따라 이러한 면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당인들의 시각을 큰 윤곽에서 접근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 3.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신라

당인이 신라인을 만나는 것은 당의 개국 이래로 줄곧 있었지만, 시문을 주고 받은 것은 성당 이후부터이며, 중당 이후 점점 빈번해졌다. 신라인은 유학을 하러 가거나, 사신으로 가거나, 유학생으로 가는 경우 문인들과 만나 시문을 주고받았다. 시문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구사하고 한문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를 쓰고 읽는 교양이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신라 상인이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왕시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는 안사의 난 이후 각지에서 절도사의 발호가 심해졌고, 크고 작은 전란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인들이 점점 강남으로 이주하게 되었다.<sup>5)</sup> 신라도 북방에 발해가 있어 바다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로 지금의 산둥, 강소, 절강 지역의 연안으로 접근하여 그 일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신라 문인 또는 승려들이 만나는 당인들도 자연 강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라인의 활동 지역도 강남이 중심이 되었다. 예컨대 신라 승려들은 다른 곳보다 천태산에 가는 기록이 많다.

현존하는 당인들의 신라인에 관련된 시를 일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머나먼 지역'이란 이미지이다. 바다를 두고 격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큰 화제였다. 신라인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당인들은 이러한 바다의 풍파를 건너야 한다는 염려를 빠뜨리지 않는다. 마대(馬戴, ?~860?)의 <신라로 돌아가는 박 산인을 보내며> (送朴山人歸新羅)를 예로 들어보자.

浩渺行無極, 드넓은 곳에서 무극을 향해 떠나가며  
揚帆但信風, 돛을 올리고 다만 풍향만 믿는구나  
雲山過海半, 구름 낀 산 사이로 바다를 반쯤 지나가면

5) 서성, <晚唐 詩風의 지역적 분화—강남 시풍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이론》제5집, 2005) 참조.



鄉樹入舟中. 고향의 나무들이 배 안에서 보이리라  
 波定遙天出. 파도가 잦아들면 아득한 하늘이 가까워지고  
 沙平遠岸窮. 모래가 평평하게 해안 멀리까지 이어져 있으니  
 離心寄何處? 이별의 마음을 어느 곳에 부치랴?  
 日斷曙霞東. 아침노을 물드는 동쪽 끝을 바라보리

위의 시는 주로 박 산인이 신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도정을 그리며 상대에 대한 정을 나타내었다. 머나먼 도정에 대한 염려는 곧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의와 다름 아니다. 사실 당인들의 시작에서 떠나는 사람의 도정을 미리 상정하여 묘사하는 것은 당대 송별시의 정격(正格)이다. 때문에 이러한 여정과 목적지에 대한 관심은 당의 문화 속에 깊이 배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시인들은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떠나가는 배를 그리는데 필목을 아끼지 않았다.

푸른 파도의 험난한 구덩이 너머로, 어느 섬이 신라인가?  
 — 許渾, <送友人罷學歸東海>: “滄波天塹外, 何島是新羅?”  
 안개는 외진 섬에 쌓이고, 파도는 하늘과 연이어져  
 — 沈頌, <送金文學還日東>: “煙霧積孤島, 波濤連太空.”  
 어둡고 푸른 바다 천만 리, 밤낮으로 떠가는 외로운 배  
 — 劉愼虛, <海上詩送薛文學歸海東>: “滄溟千萬里, 日夜一孤舟.”  
 구름 속 섬은 망망히 하늘가에 희미한데, 동으로 만리 멀리 돛폭 하나 날아가네  
 — 張籍, <送金少卿副使歸新羅>: “雲島茫茫天畔微, 向東萬里一帆飛.”  
 물길 아득히 만여 리인데, 해 떨어지는 노을 속에 조각배 띄우누나  
 — 姚鵠, <送僧歸新羅>: “淼淼萬餘里, 扁舟發落暉.”  
 쪽배는 달을 언덕도 없이, 만리 멀리 별을 따라 가는구나  
 — 張喬, <送賓貢金夷吾奉使歸本國>: “孤舟無岸泊, 萬里有星隨.”  
 새는 날아서 오는 길이 있건만, 돛 그림자는 자취 없는 곳으로 가는구나  
 — 張喬, <送僧雅覺歸海東>: “鳥行來有路, 帆影去無蹤.”  
 해안을 떠나 하늘을 향해 떠나가니, 한해가 다가도록 깃들 곳 없으니  
 — 貫休, <送新羅僧歸本國>: “離岸乘空去, 終年無所依.”

뿐만 아니라 신라인들이 귀국하는 도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상상하였는

데, 요곡(姚鵠)은 “추위와 더위가 중간에 바뀌고, 인가의 연기가 고개 너머 드 무리라”<sup>6)</sup>고 하였고, 심송(沈頌)은 “멀고 먼 고향 가는 길을 가리키며, 유유히 꿈속과 같으리라”<sup>7)</sup>고 형상화하였다. 장교(張喬)는 “뚝뚝을 거두고 부싷돌을 쳐 불을 피우고, 섬에서 묵으며 병에 물을 담으리”<sup>8)</sup>라고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드센 파도에 때로 동료를 잃어, 햇불을 들고 밤중에 서로 찾아왔어라”<sup>9)</sup>고 말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단순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 신라인들로부터 들었던 실제의 상황들일 것이다. 결국 당인들의 시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sup>10)</sup>

당인들의 시에는 신라인들이 당나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하였는지도 서술하고 있어 흥미롭다. 장적(張籍)은 “만리 멀리 사신으로 왔는데, 집을 떠난 지 지금 몇 해 되었나?”<sup>11)</sup>라고 물음으로써 여러 해 동안의 노고를 함축하고 있다. 가도(賈島)도 “동쪽 바다에서 떠나온 지 몇 해인데, 중화에서 오늘에야 돌아가네”<sup>12)</sup>라고 말하였고, 장교(張喬)도 “하늘 끝에서 24년을 보냈고, 궁궐 아래에서 세 임금을 거쳤어라”<sup>13)</sup>고 상대의 경력을 요약하였다. 그런가 하면, 고비웅(顧非熊)은 “젊어서 고국을 떠나왔는데, 지금 돌아가려니 이미 노옹이 되었구료”<sup>14)</sup>라고 탄식하는가 하면, 요곡(姚鵠) 역시 “어둡고 푸른 바다 어느 해 떠나왔는데, 흰 머리가 된 지금 돌아가는가”<sup>15)</sup>라고 탄식하였다. 이들은

6) 姚鵠, <送僧歸新羅>: “寒暑途中變, 人煙嶺外稀.”

7) 沈頌, <送金文學還日東>: “漫漫指鄉路, 悠悠如夢中.”

8) 張喬, <送新羅僧>: “落帆敲石火, 宿鳥汲瓶泉.”

9) 張喬, <送朴充侍御歸海東>: “驚波時失侶, 舉火夜相招.”

10) 당시 신라와 당의 왕래가 위험하고 힘들었던 점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유사한 사례로 일본의 견당 유학생 아베노 마카마로(阿倍仲麻呂, 698-770, 晁衡)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717년(20세) 입당한 후 과거에 급제했으며, 교서랑, 좌보궐, 위위소경(衛尉少卿), 비서감, 좌산기상시 겸 안남도호 등을 역임하였다. 753년(56세)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으나 풍랑을 만나 월남으로 표류하였다가 온갖 고초를 겪고 755년(58세) 다시 장안에 도착했다. 곧이어 안사의 난이 일어나 756년 현종이 성도로 피난 갈 때 따라 갔다가 757년 현종을 따라 다시 장안으로 돌아왔고 770년(73세)까지 살았다.

11) 張籍, <送新羅使>: “萬里爲朝使, 離家今幾年.”

12) 賈島, <送楮山人歸日東>: “東海幾年別, 中華此日還.”

13) 張喬, <送朴充侍御歸海東>: “天涯離二紀, 闕下歷三朝.”

14) 顧非熊, <送朴處士歸新羅>: “少年離本國, 今去已成翁.”

15) 姚鵠, <送僧歸新羅>: “滄溟何歲別, 白首此時歸.”

한대 고시 중의 <열다섯에 전쟁터에 나가>(十五從軍征)를 연상시키며 신라인들의 재당 생활이 어떠했는지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sup>16)</sup>

당인들은 신라라는 지역적 장소를 신화의 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상의 지리' 또는 '인문적 지리'가 당대 지식인에게 중요한 교양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그 내용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시의 이면에 깃든 신라에 대한 우호감을 함께 읽을 수 있다. 신화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는 부상(扶桑)과 삼신산(三神山)이다. 게다가 돌과 나뭇가지로 부단히 바다를 메우려는 정위(精衛), 눈물이 진주인 교인(蛟人), 《열자》<탕문>(湯問)에 등장하는 거대한 자라(巨鼈) 등도 종종 제시된다.

나뭇가지 물어나르는 정위(精衛)가 물결을 헤치고, 눈물이 진주되는 교인이 나란히 잔다네

— 陶翰, <送金卿歸新羅>: “拂波銜木鳥, 偶宿泣珠人.”

교인의 집에서 밤에 잠들면 음화가 차갑고, 신기루 속 아침에 배를 대면 새벽노을이 깊어라. 바람이 드높으면 나뭇잎이 비어의 등에서 날고, 조수가 잦아들면 삼신산이 바다에서 솟아나리

— 章孝標, <送金可紀歸新羅>: “蛟室夜眠陰水冷, 蜃樓朝泊曉霞深. 風高一葉飛魚背, 潮淨三山出海心.”

자라가 잠기면 거대한 해안이 무너지고, 용이 싸우게 되면 먼 하늘에서 나타나리

— 顧非熊, <送朴處士歸新羅>: “鼈沈崩巨岸, 龍鬪出遙空.”

하늘을 울리도록 거대한 자라가 싸우고, 해를 가리며 대붕이 날아가리

— 姚鵠, <送僧歸新羅>: “驚天巨鰲鬪, 蔽日大鵬飛.”

내 듣기로 바다에 세 마리 금 자라가 있는데, 금 자라는 머리에 높디높은 산을 이었다지. 산 위에는 진주와 패각으로 만든 황금 궁궐이 있다네

— 顧雲, <送崔致遠西遊將還>: “我聞海上三金鼈, 金鼈頭戴山高. 山之上兮, 珠宮貝闕黃金殿.”

고래가 새벽에 지느러미를 치켜들면 봉우리가 바로 밝아오고, 자라가 밤에 눈을 감고 잠기면 섬이 다시 어두워진다네

— 皮日休, <庚寅歲十一月新羅弘惠上人與本國同書請日休爲靈鷲山周

16) <十五從軍征>: “十五從軍征, 八十始得歸. 道逢鄉里人, 家中有阿誰? 遙望是君家, 松柏塚累累. 免從狗竇入, 雉從梁上飛. 中庭生旅穀, 井上生旅葵. 烹穀持作飯, 采葵持作羹. 羹飯一時熟, 不知貽阿誰. 出門東向望, 淚落沾我衣.” 《樂府詩集》卷25.

禪師碑將還以詩送之>：“鯨鬣曉掀峰正燒，鼇睛夜沒鳥還陰。”

관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옷 위의 햇빛은 바로 불이고, 섬 옆의 고기 뼈는 배보다 더 크더라”<sup>17)</sup>고 하여, 신화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신라의 광경을 인상적으로 그렸다. 이밖에 신라의 풍물을 그린 구절도 더러 있는데 장효표의 “문장을 동이의 음악에 실어, 반도화 꽃 아래에서 인삼에 취하리라”<sup>18)</sup>고 하였다. 이들은 중국 내의 변경에 대해 묘사한 왕유(王維)의 <재주로 가는 이 사군을 보내며>에 나오는 “사천 지방 여인들은 동포(幢布)를 조세로 바치고, 파촉 지방 사람들은 토란 밭으로 송사를 벌리리라”<sup>19)</sup>, 한유(韓愈)의 <계림으로 가는 엄 대부를 보내며>에 나오는 “집집마다 물총새 깃털을 공물로 내고, 가가호호 노란 황피과(黃皮果)를 심는다지”<sup>20)</sup>, 유종원(柳宗元)의 <영남 강행>에 나오는 “산 중턱에 비 개이니 흰 구름은 코끼리 같고, 연못 가운데 해가 따뜻하니 교룡이 침 흘리네. 사공 벌레는 침 쏘려고 지나가는 사람 살피고, 태풍 구름 일어나니 객선의 사람들 놀라는구나”<sup>21)</sup> 등의 비교적 잘 알려진 시구들과 비교해보아도 그 생동감이 못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인들의 신라인에 대한 인상 가운데 하나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근면한 사람이란 점이다. 머나먼 지역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큰 뜻을 가지지 않으면 이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당인들은 이를 종종 ‘높은 사업’(至業) 또는 ‘높은 가르침’(至教)을 얻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였다.<sup>22)</sup> 특히 승려들의 고행에 대한 묘사가 자주 보인다. 향사(項斯)의 <일동의 병든 스님>(日東病僧)을 보자.

雲水絕歸路， 구름과 바다에 돌아갈 길 막혔는데

17) 貫休, <送新羅人及第歸>: “衣上日光真是火, 島旁魚骨大於船.”

18) 章孝標, <送金可紀歸新羅>: “想把文章合夷樂, 蟠桃花裏醉人參.”

19) 王維, <送梓州李使君>: “漢女輸幢布, 巴人訟芋田.”

20) 韓愈, <送桂州嚴大夫>: “戶多輸翠羽, 家自種黃甘.”

21) 柳宗元, <嶺南江行>: “山腹雨晴添象跡, 潭心日暖長蛟涎. 射工巧伺遊人影, 惡母偏驚旅客船.”

22) 裴說, <贈賓貢>: “惟君懷至業, 萬里信悠悠.” 貫休, <送新羅僧歸本國>: “忘身求至教, 求得卻東歸.”

來時風送船. 올 때는 바람이 배를 밀어 보내주었지  
 不言身後事. 죽은 뒤의 일에는 말이 없는 채  
 猶坐病中禪. 여전히 앉아서 병든 몸으로 참선하시네  
 深壁藏燈影. 깊은 벽에는 등불 그림자가 일렁이고  
 空窗出艾煙. 빈 창문에는 쑥 연기가 피어올라  
 已無鄉土信. 벌써부터 고향의 편지조차 없는데  
 起塔寺門前. 절문 앞에 탑 하나가 세워졌네

위 시는 죽음을 앞둔 신라 스님이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선에 힘쓰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신라에서 오는 편지도 오래 전에 끊어지고 오로지 구도에만 정진하는 형상은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 양기(楊夔)의 <천태산에 놀러가는 일동의 스님을 보내며>에서도 “물 한 병 들고 태양 저 너머에서 와, 적성산을 가리키며 걸어가는구나”<sup>23)</sup>고 하였고, 관휴의 <석상산으로 들어가는 스님을 보내며>에서도 “요사채에는 마른 신라 승이 있고, 난로에는 거친 등걸나무가 타고 있네”<sup>24)</sup>라고 하여 신라 승려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승려를 비롯하여 신라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음은 당인의 시에서 곧잘 볼 수 있다.

중원의 말을 할 수 있고, 외국의 글을 쓸 수 있어라

— 張籍, <贈海東僧>: “學得中州語, 能爲外國書.”

중화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장차 돌아가면 누구와 함께 하리오?

— 顧非熊, <送朴處士歸新羅>: “學得中華語, 將歸誰與同.”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여 당나라 말을 하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고향 숲을 생각하네

— 章孝標, <送金可紀歸新羅>: “登唐科第語唐音, 望日初生憶故林.”

큰 바다를 누구와 건널 것인가? 빈산을 호랑이와 함께 간다네

— 顧非熊, <寄紫閣無名新羅頭陀僧>: “大海誰同過, 空山虎共行.”

마음을 다하여 적멸로 회귀하고, 고요히 앉아 정미한 경지를 얻었어라

— 孫逖, <送新羅法師還國>: “苦心歸寂滅, 宴坐得精微.”

해 떠오르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인데, 중원의 성지를 두루 다니려 하는구나

23) 楊夔, <送日東僧遊天台>: “一瓶離日外, 行指赤城中.”

24) 貫休, <送僧入石霜>: “撩舍新羅瘦, 爐煙檜柵粗.”

- 齊己, <送高麗二僧南遊>: “日邊鄉井別年深, 中國靈蹤欲遍尋.”  
 일동에서 서쪽으로 놀러 와, 주발 하나 들고서 한가히 구주를 다니는구나  
 — 齊己, <送僧歸日本>: “日東來向日西遊, 一鉢閑尋徧九州.”

시들에서는 특히 중국어를 잘 하고 글을 잘 지을 수 있는 데 대해 놀라고 있으며, 승려의 경우 법력이 놓거나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자세를 높이 쳤다. 최치원도 회남절도부에서 근무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국의 말을 통역하고, 성대의 장구를 배운다”(譯殊方之語言, 學聖代之章句.)고 하였는데<sup>25)</sup>, 당나라에서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언어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컨대 신라승 도육(道育)은 892년 천태산에 놀러 갔다가 평전사(平田寺)에서 40여 년을 머물렀는데, “자비와 애정으로 대하였지만 결국 신라의 말을 버리지 않았다. ... 빈객을 대할 때는 다만 ‘이이’ 두 글자만 할 수 있고 중국어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차질이 없었다.”<sup>26)</sup>고 하였다. 도육은 언어가 아닌 오성으로 사람의 뜻을 이해하고 구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인들에게 이러한 정신이 있기에 최치원과 같이 12세의 나이에 입당하여 18세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고, 당나라에서 모두 15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sup>27)</sup> 당인들의 시는 신라인의 모습과 활동을 인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평담한 표현 속에 신라인에 대한 깊은 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 원도를 오가는 역정 속에 각고의 노력과 근면한 태도로 가열찬 추구를 하는 정신을 높이 칭송하였다.

25) 崔致遠, <再獻啓>, 《桂苑筆耕集》 권17.

26) 贊寧, <晉天台山平田寺道育傳>, 《宋高僧傳》 권23: “慈愛接物, 然終不舍島夷言音. … 凡對晤賓客, 止云‘伊伊’二字, 殊不通華語. 然其會認人意, 且無差脫.” 이 자료는 黨銀平의 《唐與新羅文化關係研究》에서 얻었다.

27) 黨銀平, 《唐與新羅文化關係研究》(中華書局, 2007)에서는 신라인으로 당나라의 과거에서 급제한 사람 가운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15명으로 정리하였다. 고려의 최자(崔滋)는 신라인의 과거 급제자를 58명으로 보았다. 《東文選》 권84 <送奉使李仲父還朝序> 참조.

#### 4. 자국인 사이의 시선으로 본 신라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신라는 당과 강력하게 결속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신라와 당의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고, 당에서 신라왕의 책립과 조문으로 사절을 파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 사신 또는 부사로 임명되어 신라로 출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당대에는 송별시가 일종의 교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제작되었는데, 국가적인 임무를 띠고 떠나는 사람에게 개별 또는 단체로 송별시를 써주었고, 그러한 송별시가 위의 표에서 정리하였듯이 현재 17수 남아 있다. 원래는 훨씬 많았겠지만 산일되고 남은 결과이다.

신라로 출사하는 당인 가운데 정사(正使)는 일반적으로 품계가 '정 5품 상'인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고관에 속하기 때문에, 송별시를 증여하는 문인들은 비교적 장중하고 전아한 어조로 시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의 송별시는 원도의 노고에 대한 염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인 일에 대한 의견을 붙이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었다. 때문에 개인적인 정회를 표현하는 내용이 크게 줄어들었고, 원도의 행정도 다소 정교한 대구로 아취 있게 표현하였다.

외교적인 임무를 맡은 사신을 보내며 쓴 당인들의 시는 신라를 대상으로 하여 자국인끼리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점에서 신라와 신라인에 대한 입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외부자 시선이 개인적인 시각이라면, 내부자 시선은 공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인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유우석(劉禹錫, 772-842)의 <신라 책립사로 충원되어 떠나는 원 중승을 보내며> (送源中丞充新羅冊立使)를 보자.

相門才子稱華簪, 재상 집안의 제인이라 높은 관이 어울려  
持節東行捧德音. 부절 들고 덕음(德音)을 받들고 동으로 가는구나  
身帶霜威辭鳳闕, 몸으로는 서릿발 같은 위엄으로 봉궐을 떠나

口傳天語到鷄林. 입으로는 천자의 말을 계림에 전하리  
 煙開鼇背千尋碧. 안개가 걷히면 자라 등이 천 길이나 푸르고  
 日浴鯨波萬頃金. 해가 잠기면 고래만한 물결 만 이량이 금빛이리  
 想見扶桑受恩處. 보고 싶어라, 부상국 사람들 은덕 받는 곳  
 一時西拜盡傾心. 일시에 서쪽 우러르며 모두가 마음 기울이리

위 시는 831년 정사의 신분으로 신라로 떠나는 원적(源寂)을 보내며 쓴 시이다. 원적은 현종 때 재상이었던 원건요(源乾耀)의 손자로 당시 태자좌유덕겸 어사중승이었다. 신라 헌덕왕(41대, 김언승)이 죽고 흥덕왕(42대, 김경휘)이 왕위에 오른 것은 826년인데, 이로부터 5년 후에 조문과 책봉을 겸하여 사신을 보낸 셈이다. 칠언율시의 균형 잡힌 형식 속에 전아한 언어를 운용하였다. 먼저 제1, 2구에서 원적의 가문과 임무를 알리고, 제3, 4구에서 출사하는 위엄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제5, 6구에서 신라로 가는 여정의 풍광을 신화의 이미지를 빌어 그리고, 말 2구에서 당의 국세를 떨치고 덕화를 전하기를 바랐다. 여기에서 신라와 관련되는 것은 후반부로 제5, 6구의 연도의 풍광과 말 2구의 정치적 언급이다. 사실 내부자의 시선으로 쓴 당시는 이 두 가지 면이 중심을 이룬다. 유우석의 시로부터 37년 이후인 768년에 길중부(吉中學)가 지은 <신라에 책립과 조문 사신으로 가는 귀 중승을 보내며>(送歸中丞使新羅冊立弔祭)에서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

官稱漢獨坐. 관직은 동한 때의 삼독좌(三獨坐)에 해당하고  
 身是魯諸生. 몸은 노(魯) 지방의 유생이라  
 絕域通王制. 절역(絕域)으로 왕의 제도를 전하러  
 窮天向水程. 하늘 끝을 향해 물길을 가네  
 島中分萬象. 섬 가운데에서 만상이 나뉘고  
 日處轉雙旌. 해 뜨는 곳에서 쌍 부절이 돌아가리  
 氣積魚龍窟. 기운이 쌓인 곳은 물고기와 용의 굴이요  
 濤翻水浪聲. 파도가 뒤쳐는 곳은 물이 출렁이는 소리라  
 路長經歲去. 길은 한 해를 넘기며 가도록 멀고  
 海盡向山行. 바다는 산을 향해 가다가 끝나리라  
 復道殊方禮. 이역에 가서 예를 다시 말한다면



人瞻漢使榮. 사람들이 중국의 사신을 우러러보리라

위의 시에서도 연도의 풍광과 정치적 언급이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특히 연도의 풍광이 3연에 걸쳐 확장되었는데, 제5, 6구에서 도중의 행차를 그리고, 제7, 8구에서 도중의 경관을 묘사하고, 제9, 10구에서 시간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도의 풍광에 대한 묘사는 단순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송별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가 시종 계속됨을 보이는 표현이다.

산이 나타나면 잠시 기뻐하고, 바다가 펼쳐지면 오래도록 시름겨우리. 들의 바람에 북소리가 날리고, 바닷가 빗방울에 높은 부절이 젖으리

— 皇甫冉, <送歸中丞使新羅>: “暫喜孤山出, 長愁積水平. 野風飄疊鼓, 海雨濕危旌.”

바라보며 가다가 다시 저녁이 되고, 파도 속에 한 해가 지나 다시 봄이 되리라

— 耿湜, <送歸中丞使新羅>: “望裏行還暮, 波中歲又春.”

신선의 섬이 구름 같은 패식을 맞이하고, 무지개 같은 깃발이 신기루를 지나가리

— 錢起, <重送陸侍御使新羅>: “雲佩迎仙島, 虹旌過蜃樓.”

사신의 별은 북극성 같은 궁궐을 떠나니, 물길로 가는 동쪽 바다가 드넓어라. ... 목을 빼들고 한해가 지나기를 기다리노니, 돌아오는 말 위에 군왕의 은총이 있으리

— 權德輿, <送韋中丞奉使新羅往字>: “星辭北極遠, 水泛東溟廣. ... 延頸旬歲期, 新恩在歸鞅.”

벌써 더위와 추위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드넓은 바다의 행정을 근심하리

— 皇甫曾, <送歸中丞使新羅>: “已變炎涼氣, 仍愁浩淼程.”

이러한 묘사는 앞에서 당인이 신라인에게 주는 시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신의 행차이므로 장중하고 전아한 어휘를 운용하고 대구를 정교하게 쓰다 보니 응제시(應製詩)의 풍모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 유우석의 제5, 6구와 마찬가지로 전기와 권덕여의 시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자의 시선에서 쓴 당인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치적 언급으로, 여기에서 신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앞의 유우석과 길중부의 시에서도 말미에서 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고향(顧況, 727-815)의 <신라에 사신으로 가는 종형을 보내며>(送從兒使新羅)에서 더

육 뚜렷하게 볼 수 있다.

六氣銅渾轉, 사시와 음양이 혼천의를 돌리고  
 三光玉律調, 해와 달과 별이 율관을 계절 따라 고르게 하니  
 河宮清奉臚, 황하가 맑아져 조공이 들어오고  
 海嶽晏來朝, 사해와 오악이 평안하니 입조하러 오는구나  
 地絕提封入, 먼 곳의 벽지도 천자의 강역이니  
 天平賜貢饒, 천하가 안정되어 납공이 풍성하여라  
 揚威輕破虜, 군사를 일으켜 이민족 치는 일을 가버이 여겨  
 柔服恥征遼, 회유하려다가 요동에서 수모를 당하였어라  
 曙色黃金關, 동해의 신선산 황금 궁궐에 새벽빛이 비치면  
 寒聲白鷺潮, 백로 떼들 노는 바닷가에서 차가운 울음 들으리라  
 樓船非習戰, 누선이 나아가는 것은 전쟁 연습이 아니요  
 驄馬是嘉招, 총마가 가는 것도 아름다운 초청 때문이라  
 帝女飛銜石, 염제의 딸 정위(精衛)는 돌을 물어 바다를 메우고  
 鮫人賣淚綃, 바다의 교인(蛟人)은 눈물 진주를 팔고 베를 짠다지  
 管寧雖不偶, 관녕(管寧) 같은 사람을 비록 만나지 못할지라도  
 徐市尙相邀, 흑여나 서불(徐市)의 초대를 받을지 모르리  
 獨島懸空翠, 외떨어진 섬은 비취빛 산으로 떠있고  
 孤霞上沈寥, 한 줄기 노을 위로 하늘이 드넓으리  
 蟾蜍同漢月, 달 속의 두꺼비는 한나라의 달과 같으나  
 蠓蝻異秦橋, 무지개 같은 다리는 중원의 모습과 달라라  
 水豹橫吹浪, 물 표범은 어지러이 파도를 뿜어내고  
 花鷹迴拂霄, 얼룩 송골매는 아득히 하늘 위로 치솟으리  
 晨裝凌莽渺, 새벽에 짐을 꾸려 드넓은 평원을 넘어가고  
 夜泊記招搖, 밤에 배를 대면서 북두칠성으로 위치를 확인하리  
 幾路通員嶠, 어느 길이 원교산(員嶠山)으로 통하고  
 何山是沃焦? 어느 산이 옥초산(沃焦山)이런가?  
 颶風晴汨起, 태풍은 맑은 날에도 드세게 불고  
 陰火暝潛燒, 음화는 어두운 물속에서도 환하리라  
 鬢髮成新髻, 머리는 상투를 틀어 중원과 다른데  
 人參長舊苗, 인삼은 묵은 싹에서 자라나리라  
 扶桑銜日近, 부상은 가까이에서 해를 안고 있고  
 析木帶津遙, 석목의 나루는 멀리 은하수에 놓였으리  
 夢向愁中積, 꿈은 근심 속에서 점점 많아지고

魂當別處銷. 혼은 이별의 장소에서 꺼질 듯해라  
 臨川思結網. 강물에 이르면 그물을 엮어 고기를 잡으려 하고  
 見彈欲求鴞. 나무 위 부엉이를 잡으려고 탄환을 재어보리  
 共敷義和曆. 두 나라가 당나라의 회화력(義和歷)을 사용하니  
 誰差甲子朝. 정해진 날짜에 착오 없이 입조하리라  
 滄波伏忠信. 푸른 파도는 충정과 믿음으로 넘고  
 譯語辨諛謠. 말을 통역하며 이역의 노래를 판별하리라  
 疊鼓鯨鱗隱. 빠른 북소리에 고래와 어족들이 숨고  
 陰帆鷁首飄. 돛폭을 낮추면 익조의 뱃머리가 날아가리  
 南溟垂大翼. 북해에서 남해로 봉새가 큰 날개를 펼치고  
 西海飲文鯨. 서해에서 동해로 문요가 날며 물을 마시리  
 指景尋靈草. 환히 빛나는 곳에서 영지를 찾고  
 排雲聽洞簫. 구름을 헤치고 신선의 통소소리 들으리  
 封侯萬里外. 만리 멀리에서 공을 세워 후작에 봉해지려니  
 未肯後班超. 분명 반초보다 못하지 않으리라

위 시는 고향이 신라에 사신으로 가는 사촌 형 고음(顧愔)을 보내며 쓴 시이다. 768년 2월 창부랑중 겸 어사중승 귀숭경(歸崇敬)을 정사로 하여 사절단을 파견할 때 사촌 형 고음(顧愔)과 육정(陸珽)이 부사로 동행하였다. 당 제국의 번영을 자부심 넘치는 기상으로 서술하면서 사신의 임무를 격려하였고, 신라로 가는 여정에 나타나는 이국적 풍정을 신화의 장면과 기이한 풍물로 채워 넣었다.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라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임무와 신화의 이미지와 현실의 모습이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등장하여 변화 많은 구성을 꾀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먼 곳의 벽지도 천자의 강역이니, 천하가 안정되어 납공이 풍성하여라”는 신라에 대한 정치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시경》에서 말한 “드넓은 하늘 아래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는 인식의 연장이기도 하며, 《구당서》에서 당 고종이 백제의 백성도 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대목과 일치한다.

위의 시에서 신라로 가는 사신의 힘겨운 역정을 묘사하면서 “푸른 파도는

정성과 믿음으로 넘고”(滄波伏忠信)라고 했는데, 이러한 역정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임무란 다름 아닌 ‘왕의 교화’이다. 이러한 서술은 독고급(獨孤及)의 <신라에 책립과 조문 사신으로 가는 귀 중승을 보내며 서문>(送歸中丞使新羅冊立弔祭序)에서 “대개 정성과 믿음을 행하는 데는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으며, 왕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원근을 가리지 않는다”(蓋行忠信者無險易, 拘於王程者無遠近.)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다.<sup>28)</sup> 이러한 언급은 다른 시에서도 볼 수 있다.

이국의 풍속에 문교를 전하니, 큰 학자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리라. 게다가 ‘대대례기’를 가지고 가니, 신라의 여러 생도들에게 전수하리라

— 皇甫冉, <送歸中丞使新羅>: “異俗知文教, 通儒有令名. 還將大戴禮, 方外授諸生.”

먼 나라에 왕의 교화를 전하려고, 유림에서 사신을 뽑았어라

— 耿湋, <送歸中丞使新羅>: “遠國通王化, 儒林得使臣.”

비로소 알겠나니, 유학의 풍도가 멀리 전해져, 이방의 예악이 새로우리

— 錢起, <送陸珣侍御使新羅>: “始覺儒風遠, 殊方禮樂新.”

두터운 교화는 명교와 일치하니, 이방이 고르게 은혜를 받으리라

— 權德輿, <送韋中丞奉使新羅往字>: “淳化洽聲明, 殊方均惠養.”

은덕이 해와 달 너머로 전해지니, 꿈은 파도의 동쪽에 있으리라

— 孟郊, <奉同朝賢送新羅使>: “恩傳日月外, 夢在波濤東.”

옥 부절이 배에 있으니 바다의 괴물이 조용하고, 금빛 목함에서 조서를 펼치니 동이의 왕을 어루만지리 ... 그 누가 그대와 같이 비와 이슬을 가지고, 만리 멀리 해동의 부상국에 뿌릴 수 있겠는가

— 姚合, <送源中丞使新羅>: “玉節在船清海怪, 金函開詔撫夷王. ... 誰得似君將雨露, 海東萬里灑扶桑.”

바다 건너 금박의 책봉 조서를 전하니, 중화와 동이 사이에 예법이 시행되리

— 馬戴, <送冊東夷王使>: “越海傳金冊, 華夷禮命行.”

여전히 중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바야흐로 바다와 같이 깊으리라

— 曹松, <送胡中丞使日東>: “猶有中華戀, 方同積浪深.”

이들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인의 의식은 두 나라의 관계가 상하 하이라키

28) 獨孤及, <送歸中丞使新羅冊立弔祭序>, 《全唐文》권387.

에 의해 조화롭게 관계를 이루기를 바랐다. 당의 입장에서는 황은과 문교(文教)를 내리고, 신라의 입장에서는 왕화를 입어 중화의 문물을 그리워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관점이 내부자 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자 시선에서도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눈에 뜨인다. 예컨대 현종 이융기(李隆基)는 “사신이 가서 풍교를 전하고, 신라 사람들이 와서 전적을 배워”<sup>29)</sup>라고 하였다. 또 유신허(劉愼虛)는 “이별 앞에서 중국의 문화를 그리워하고, 바람과 물결은 황제의 덕을 경모하는 듯”<sup>30)</sup>이라 하였으며, 도한(陶翰)도 “예악으로 동이의 풍속이 변하고, 의관은 한나라 체재로 새로우리”<sup>31)</sup>라고 말하였다. 이들 시편을 읽으면 당인이 생각하는 문물의 교류란 사실 예악으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이자 정치질서와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주로 당시 가운데 신라와 관련된 시 가운데, 당인이 신라인에게 준 시와 당인이 당인에게 준 시를 대상으로 당대 문인의 신라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방법으로서 당인의 두 가지 시선을 전제하였다. 당인의 입장에서 신라 또는 신라인을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를 보는 시각을 ‘외국인의 시선’이라 규정하였고, 자국인에게 신라를 말할 때는 자국인끼리 말한다는 점에서 ‘자국인 사이의 시선’이라 규정하였다. 그 결과 신라에 대한 두 가지 주요한 관점이 드러났으며, 신라에 대한 인식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쓴 시는 사실 당인이 신라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

29) 李隆基, <賜新羅王>: “使去傳風教, 人來習典謨.”

30) 劉愼虛, <海上詩送薛文學歸海東>: “離別惜吾道, 風波敬皇休.”

31) 陶翰, <送金卿歸新羅>: “禮樂夷風變, 衣冠漢制新.”

루어진 경우가 많고, 자국인 사이의 시선으로 쓴 시는 당인이 신라에 사신으로 가는 고관이나 선배에게 주는 송별시가 많으므로, 이들은 각각 사적 시각과 공적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시선 또는 사적 시각에서는 신라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각고의 노력을 높이 사는 경우가 많지만, 자국인 사이의 시선 또는 공적 시각에서는 신라인 개인이 아니라 신라라는 국가 개념이 드러나고 이를 당나라와 묶어 상하 위계질서로 바라보았다. 때문에 문물의 교류와 책봉과 조문 의식은 당인 입장에서는 왕화(王化)와 황은(皇恩)의 의미를 띠게 된다.

이러한 상하 위계질서는 주대에 완성된 종법제와 분봉제의 연장이자 유교적 상하 하이라키 개념의 국가적 표현으로, 당과 신라를 등급화 시켜 의식하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모든 관계를 상하 관계로 질서화하려는 중국적 특징이 당인이 바라보는 신라-당의 관계에서도 드러났고 시문에 반영되어 있었다. 신라에 대해서도 신라인 개인과 신라라는 국가에 대해 각기 편차가 있는 인식으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국이 지닌 국가와 인간에 대한 대등한 인식의 결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당시 두 나라의 시가 교류는 상당히 번성했으며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參考文獻 >

-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대동문화연구원, 1972.  
 崔致遠, 黨銀平 校注, 《桂苑筆耕集校注》, 中華書局, 2007.  
 《十抄詩》, 고려대 소장본.  
 (高麗)釋子山 夾註, 查屏球 整理, 《夾註名賢十鈔詩》, 上海古籍出版社, 2005.  
 (高麗)徐巨正 撰, 민족문화추진회 역,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1967.  
 (高麗)金富軾 撰, 이병도 교감,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84.

- 韓致滄 撰, 《海東釋史》, 여강출판사, 1987.
- (宋)郭茂倩 編撰, 《樂府詩集》, 中華書局, 1991.
- (宋)贊寧 撰, 《宋高僧傳》, 中華書局, 1987.
- (清)彭定求 等編, 《全唐詩》, 中華書局, 1992.
- 陳尙君 輯校, 《全唐詩補編》, 中華書局, 1992.
- (清)董誥 等編, 《全唐文》, 中華書局, 1996.
- 《中國文學家大辭典—唐五代卷》, 中華書局, 1992.
- 傅璇琮吳在慶, 《唐五代文學編年史》, 遼海出版社, 1998.
- (後晉)劉昫等 撰, 《舊唐書》, 中華書局, 1997.
- (宋)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中華書局, 1997.
- (宋)王溥, 《唐會要》, 中華書局, 1955.
- 謝海平, 《唐代留華外國人生活考述》, 臺灣商務印書館, 1968.
- 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歷史研究叢考》, 1969.
- 謝海平, 《唐代詩人與在華外國人之文字交》, 臺灣文史哲出版社, 1981.
- 牛林杰, <韓國文獻中的《全唐詩》逸詩考>, 《文史哲》, 1998-5.
- 方亞光, <論唐代中外交往詩>, 《唐文化研究論文集》, 上海人民出版社, 1994.
- 楊通方, 《中韓文化交流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中華書局, 1997.
- 蔣非非王小甫, 《中韓關係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 \_\_\_\_\_, 김승일 옮김, 《한중관계사》, 종합출판범우, 2005.
- 李巖, 《中韓文學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 楊昭全, 《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 崑崙出版社, 2004.
- 서성, <晚唐 詩風の 지역적 분화—강남 시풍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이론》 제5집, 2005.
- \_\_\_\_\_, <新羅 詩人과 唐代 詩壇>, 《중국어문논총》 제28집, 2005.
- 黨銀平, 《唐與新羅文化關係研究》, 中華書局, 2007.
- 方曉偉,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廣陵書社, 2007.
- 서성, <晚唐 七言律詩와 新羅 漢詩>, 《중국어문논총》 제37집, 2008.
- \_\_\_\_\_, 《大曆十才子 詩選》, 지만지, 2011.

## &lt; 中文提要 &gt;

本文以現存新羅人與唐人寫的交往詩一百五十多首為對象，探討了唐代文人對新羅與新羅人的認識。為此，首先按照唐人的視角，把現存作品分為兩大類，導出了唐人的兩種不同的視角：唐人把新羅人對待外國人的視角來寫詩，可以規定為“外國人的視角”；唐人與唐人之間寫詩提及新羅與新羅人，可以稱之為“自國人之間的視角”。這樣通過唐人的視角來再讀交往詩，得到了唐人對新羅的主要觀點。

唐人送新羅人回國的時候寫送別詩，一般私人的身分來激賞不遠萬里來往的辛苦，讚美勤奮努力的志氣，祝願回國的路程的平安。唐人送新羅使去新羅的時候寫送別詩，使臣一般是高官，詩人一般是使臣的後輩，經常站在公人的立場，表現出對新羅國家的觀念。冊封弔問使的遠程是國家的公務，因此唐人對羅唐關係附與了國家等級秩序，看待新羅為王化的對象。這種國家等級認識，在“外國人的視角”裏表現得不太明顯，但是在“自國人之間的視角”裏時時出現。從中我們可以發現唐人對新羅的雙重認識。

關鍵詞：新羅、唐、交往詩、外國人的視角、自國人之間的視角、國家等級認識、雙重認識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3. 31.	2012. 5. 3.	2012. 5. 7.	2012. 5. 21.	2012. 5. 31.